

## OECD DAC 동향

(2013. 4. 26)

경협기획실 정책연구팀

### 1. Development Issue

#### ① DAC 통계지침상 양허성 관련 제안서(proposal on concessionality)에 합의

- EU, 프랑스, 독일의 일부 고금리 양허성 차관에 대한 ODA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DAC 내 양허성 논의 및 통계 보고 관련하여\*, 사무국이 제시한 문안에 대해 아무 회원국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4월 8일 동 제안서 승인

\* 관련 내용은 'OECD DAC 동향 제3호('13.2.28)' 참고

#### 제안문 주요 내용

- EU, 독일, 프랑스는 ODA 통계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상세 지원조건 외에 양허성 차관 지원배경(Rationale), 자국의 양허성 견해(Own views of concessionality in character) 등을 추가 제출  
- (적용기간) 2011-2014년 통계보고 (단 2011-2012년 보고분은 소급 적용)
  - 다만 한국, 일본 등 기타 양허성 차관 지원국은 제안서에서 제시된 보고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, 기존의 보고관행(Reporting Practice) 유지
  - DAC은 EU, 독일, 프랑스가 제출한 지원배경(Rationale)을 통계보고서 Annex에 기재하고 실제 지원차관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승인
  - 이와 별개로 양허성 수준 자체 이슈인 양허성 규명 논의는 2015년 까지 계속
- 
- 동 제안서는 기존 양허성 차관에 비해 금리가 높은 (연 4% 前後) 양허성 차관을 ODA로 보고하고 있는 EU, 프랑스, 독일의 통계 보고 절차를 규명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ODA 통계보고 관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, 2015년까지 지속하기로 한 양허성 수준 논의에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

## ② European Report on Development\* 2013 (주요내용)

\* “Mobilising European Research for Development Policies Initiative”에 의거  
2009년부터 EC(European Commission)와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룩셈부르크,  
스페인, 스웨덴, 영국 등 유럽 7개국의 공동 지원으로 발간되는 보고서

\*\* 동 보고서의 개발금융 관련 내용 별도 첨부

- 새로운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됨
  - 새천년개발목표를 통해 구축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,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해 있는 도전과제의 시급성과 규모를 바탕으로,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나 소비패턴 등 변화된 글로벌 이슈를 다루어야 함
-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는 포용적(inclusive)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
  - 장기적 빈곤은 단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근절될 수 없으므로 경제 개발을 넘어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통해 대응해야 함
  - 차별은 지속적 경제·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이며, 빈곤층은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됨
- 새 프레임워크는 빈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해야 함
  - Post-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소득의 관점 외에도 다차원적 관점에서 절대빈곤을 다루어야 함
  - 또한, 사회적 차별 철폐 등 상대적 빈곤의 이슈도 다루어야 함
-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개발 프레임워크가 필요함
  - 특히 지속적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와 고용 창출이 필수적임
  - 생산적인 고용은 경제·사회·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함
-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는 각 국가의 정책과 개발 경로를 존중해야 함

- 각 개도국의 우선개발분야와 개발금융, 무역, 투자, 이주 등 관련 분야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
- 새 프레임워크는 또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함
- **‘원조를 넘어서’ 폭넓은 개발 정책의 발굴이 중요함**
  - ODA는 계속해서 중요한 개발 재원으로 역할 할 것이나, 그를 넘어서 다양한 개발재원들의 투입을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등 전략적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
- **다양한 개발재원 출처를 확보해야 함**
  - 국내재원은 물론, 민간의 국내 투자와 FDI도 개발재원으로 장려되어야 함
  - 남남협력도 하나의 출처로서 역할 할 수 있음
  - ODA는 최대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함
  - 이러한 다양한 개발재원들의 효과성과 상호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
- **국제적 수준에서의 대규모 단체 행동이 필요함**
  -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이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, 또한 세계가 직면해 있는 개도국 발전의 장애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, 국제사회는 함께 협력해야 함
- **국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**
  - 새천년개발목표로 인해 형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의 시대에도 이어가야 함
  - Post-2015 시대의 개발 프레임워크는 일련의 아젠다들이 서로 맞물리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
  - 그러나 이미 효과적인 기존의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 프레임워크에 국제 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반영하고자 할 필요는 없음
- **Post-2015 시대 EU의 개발협력 부문 노력은 ODA를 넘어서 개발협력에서의 정책일관성을 강조하고 개발우호적인 국제 제도 제정에 앞장섬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**

- EU는 기존의 개발협력 부문을 개선함과 동시에, 무역, 이주, 정책일관성, 지식공유, 기후변화 등 개발협력을 넘어서 주체들로도 Post-2015 프레임워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EU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해야함

### ③ UNDP의 Inclusive Market Development (IMD)

- (IMD 개념) 빈곤층에게도 생산자, 소비자, 노동자 등과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장, 즉 빈곤층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상품·서비스를 창출하는 시장
- UNDP의 민간부문 관련 활동은 모두 궁극적으로 Inclusive Market Development를 추구
- IMD 개념의 전신은 GSB(Growing Sustainable Business)로, 개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(대·중소기업)에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4백만 달러까지 지원 (15개국 75개 기업)

#### ○ (IMD 사례)

##### ① Dairy value chain integration in Armenia

- (개요) 영세 낙농업자들을 위한 우유 냉장-저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낙농업 현대화 및 판매 시장 개척
- (UNDP의 역할) 인프라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 부문과 낙농업협회 간의 관계 중재
- (결과) 3개의 우유 저장고를 건축하여 1,000여 명의 낙농업자가 수익 증대

##### ②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needed by the poor

- (개요) UNDP-UNCDF-EU-AusAID 간 파트너십을 통해 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
- (UNDP의 역할) 기술지원(모바일서비스 관련 컨설턴트 파견 등), 정책협의회 개최, 5개 업체 활동의 일부 비용 분담
- (결과) 150,000여 명의 고객에게 은행 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뱅킹 등 신규 상품 개발

## 2. DAC 회원국 동향

### ① 호주(AusAID), 말라위 식수 및 위생 사업 지원 (4/17)

- 말라위 7개 지역의 수도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증진 목적
  - 말라위 국책수도개발사업\*의 일환으로 AusAID와 ADB(아프리카 개발은행) 등이 공동 지원
  - \* 1990년에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2015년까지 80% 이상의 국민이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
  - 3억 달러의 사업규모 중 AusAID의 지원은 1400만 달러 비중
  - 37,000여명의 수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

### ② 일본(JICA), 동아시아 저탄소성장 파트너십 회의 Side Event 개최 예정 (5/17)

- 5월 18일 일본정부가 주최하는 ‘동아시아 저탄소성장 파트너십 회의’에 앞서 17일, 국립환경연구소(NIES) · 국제환경전략연구소(IGES)와 공동으로 Side Event 개최
  - (제목) East Asia Knowledge Platform for Low Carbon Growth
  - (참석) 태국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 관련 부처 및 UNIDO, ADB 등 국제기구


### ③ 캐나다(CIDA), 아프가니스탄 병원 건립 사업 기공식 (4/18)

- J.Fatino 캐나다 국제협력장관 참석 하에 아프가니스탄 바미얀(Bamyan)주립병원 기공식 개최
  - Muskoka Initiative on Maternal, Newborn and Child Health\*의 일환
  - 아가칸재단 캐나다 지부의 후원
  - 동 병원은 모자보건 증진에 중점 예정
  - \* 캐나다 Muskoka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('10년)에서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개도국 국민들의 공중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. G8 국가들이 50억 달러, 한국, 네덜란드, 게이츠 재단 등 파트너들이 23억 달러를 출자하여 총 73억 달러의 이니셔티브 발족.

#### ④ 독일 외교부-과학기술부-경제협력개발부 공동 컨퍼런스 개최 (4/26)

- (개요) 대외 경제 홍보 활동과 개발협력에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 부처가 합동 개최
  - 4월 26-27일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
  - 독일 상공회의소와 GIZ도 동 행사를 후원
- (논의 내용)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주목
- 현 독일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온 바 있음
  - (예시) 이주와 개발을 위한 국제 센터(CIM)의 전문가들을 각국의 독일 상의 사무소와 현지 국가 상공회의소로 파견하여 협업 기회 제공 등

### 3. OECD/DAC 주요 일정 (5/1-5/31)

	<p><b>DAC 정례회의</b> (의제) PISA for Development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도국의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(PISA) 참여 증진 방안과 Post-2015 교육 부문 목표 관련 논의</li> </ul>
---	---